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 21면에서 계속

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다 맡겨 놓으면 인연줄에 의해서 거기까지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도리를 알고서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그렇게 했더니 한 두어 서너 달 되니까 아이, 장독대를 닦고 있는데 들어오더니만 "어머니, 모든 것을 잘못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하면서 "아이, 힘드시죠?" 그러면서 장독대를 옮겨 놓는데 그걸 듬성듬성 옮기면서 자기가 그냥 물로 닦고 그렇게 그 어머니의 어려움을 덜어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 마음이 잦아져 가지고 어머니의 그 아픔을 아들이 알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이렇게 해 가지곤 아주 그때서부터 학교에다가 잘못했다고 백배사죄해 가지곤 도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 가지고선 아들이 효자가 됐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고 죽어서 잘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때 과거에 어떻게 산 거를, 어떻게 했던 거를 알 수 있고, 바로 지금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꼬락서닐 보면 미래에 어떤 게 올 거라는 거를 모두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기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법당에 들어오면 법당에 부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법당에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온 대로 거기 있는 자리에 부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당에 들어와서 절을 할 때는 부처님의 이 형상이 내 형상이요,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 생명의 뜻이 내 뜻이요, 이건 둘이 아닌 고로 그저 삼배를 올릴 것도 급하면 일정례를 올리되 둥글게 해서 그저 내 주인공으로서에 하나로서 절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입니다. 하심하게 하는 방편입니다. 아상이나 아집이나 그런 거를 모두 죽여야 모두 한마음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는 이 단어 없는 단어, 이것이 바로 우주 만유의 근본이며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해 가지고 나가는 이 작용 자체가 바로 불교입니다. 우리들을 떠나서 불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뭐가 있습니까. 무효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흐름이 있고 인연의 법칙이 있고 발전도 있고 창조력도 기를 수 있고 창조를 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놓은 것도 과학이요 밥을 지어 놓고 먹는 것도 과학입니다. 임신을 해서 어린애를 낳는 것도 과학입니다.

이거는 심성 과학이며 자동적인 과학입니다. 이 무수하고 광대무변한 이 자동적인 과학을, 심성 과학을 물질과학으로만 가서도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이, 천체물리학도 이것은 심성물리학이라야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잘 터득을 하신다면 핵심에서,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천체 모두가 나갈 겁니다. 천문학이니 하는 모든 게 전체 그 핵심에서만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 혼자만 말을 해서 안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을 했으나 나는 말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들은 게 없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게 없으면서도 바로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활 그 자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창조력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인제 질문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죠.

질문자1(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아님이 없고 모두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혹 어디가 아프든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스님께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스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하십니다. 전부 나 아님이 없고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할 때 스님이 곧 아실 거 같은데 정말 서로가 이렇게 통하고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입 밖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스님한테 알려 드리고 모두 이렇게 알려 드려야 되는 건지 그게 한 번씩….

큰스님 이거 봐요. 손을요, 이렇게 펴고만 있으면 병신이죠? 또 오그리고만 있어도 병신이죠. 이건 폈다 오그렸다 자유스럽게 해야 병신이 아니죠. 말할 때는 말하고 말을 안 할 때는 안 하고, 자유스럽게 해야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하고 만나지 않을 때는 (가슴을 짚으시며) 그냥 하고. 그것이 바로 내 주인공, 이 마음 안의 내면세계의 내 주인공만이,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통하고 돌아가니까요.

이게 즉 말하자면 신족통, 팩시밀리와 같이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며, 그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반면에 마음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같이 한 찰나에 하나가 되죠. 이렇게 물이 두 그릇이었는데, 때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말입니다, 딱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넣으니까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이건 이것대로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가 돼 버린 겁니다. (물을 다른 잔에 부어서 들어 보이시며) 한 그릇이 돼 버려요. 이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한마음, 이 주인공이다 하면 일체제불하고도, 일체제불 하면 벌써 모든 전체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내 주인공, 한 주인공의 한 찰나에, 즉 몸이 아플 땐 약사를 끌어서 쓰고 또는 가난할 땐 관세음을 끌어서 쓰고, 또 명이 짧을 땐 칠성불을 끌어서 쓰고 좋은 데로 가지 못해 애원하걸랑 지장을 불러서 쓰고, 이렇게 불러 불러 쓰는 거예요, 그냥.

이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아이구, 이거 우리 부모가 좋은 데로 못 가겠구나. 그러니까 좋은 데로, 당신만이 좋은 데로 가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가 맡기면 그냥 지장이 돼 버려요, 그냥. 지장이 돼서 그 영령들을 좋은 데로 인도를 한다 이겁니다.

> 어떠한 것이든 모든 거를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과 부드러운 뜻을 가지고
> 어떠한 조건이라도 거기다 맡겨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응신이 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찰나찰나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불을 켜려면 스위치를 올렸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불을 안 켜고 그냥 캄캄하다 캄캄하다 하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캄캄하다 캄캄하다 하지 말고, 그냥 이유를 붙이지 말고 불을 켜서 밝게 살아라 이거죠.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공' 할 때는 내 주인공이나 일체제불의 주인공이나 일체 모두 하나가 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하고 사시죠?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나한테 닥치는 대로 거기다가 맡겨 놓고 가신다면, 맡겨 놓고 지켜본다면 그냥 거기서 그대로 실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너무도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법이며 광대한 법이며 묘법인 것입니다.

질문자2(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벙어리로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정상인으로 나오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체부자유나 정박아나, 그러니까 똑같지 못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큰스님 자기가 한 대로요.

질문자2(여) 그럼 전생의 업 때문인가요?

큰스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도 자기가 한 대로 지금 자기가 받고 가죠. 남의 따귀를 때렸으면 따귀가 오고요. 그런 거죠. 남을 기껏 두들겨 패 놓고 왔다면 그쪽에서도 앙심을 먹고 또 두들겨 패러 여럿을 끌고 또 오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린애 둘이 놀다가 한 애가 불집게에 정수리가 찔려서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후로다가 그게 논란이 됐어요. 생각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불집게로다가 그렇게 찔려서 죽었겠느냐? 그래서 난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알고 짓는 죄는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짓는 죄는 모르고 받게 마련이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농촌에서 사는데, 깻벌레하고 거미가 옛날에는 무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통에다가 오줌을 받아 가지고는 씩씩거리는 깻벌레를 집게로다가 집어서 그냥 연방 넣어서 죽였습니다. 깻벌레하고 거미하고 수년을, 수십 년을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그 의식들이 아주 그냥 똘똘 뭉쳐서 그만 인간으로 화한 겁니다.

그 집이 어린애를 못 낳았는데 어린애로 화한 겁니다. 형제가 됐어요. 그 형제가 인제 글방을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이 난데없이 오시더니, 그 어린애가 당신들에게 오늘 저녁이면 원수를 갚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일러 주더랍니다. 겻불을 두 군데다가 켜 놓는데, 병아리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철망으로다가 이렇게 쳐 놓고 공석을 덮어 놓고 이렇게 겻불을 피우고 자식들이 올 때쯤 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가서 뚜껑을 아주 덮고선 아무리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인기척을 하지 말고 그 인기척이 다 끊어진 뒤에도 한 시간 후에 나가 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밑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 본 거예요, 정식으로. 아닌 게 아니라 아, 얼마 있더니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배고파!" 이러고 들어오더니아, 나중에는 그냥 찾다 찾다 없으니까 "이 연놈들 어디 갔어?" 하하하,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데, 오늘 이 시간이 넘어가면 우린 다 그냥 원수를 갚지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하고 그냥 팔팔 뛰고 울면서 그냥 뭐, 거산을 하고 찾더라는 겁니다. "이 연놈들에 대한 마음이 수십 년 동안 응고가 돼서 내가 이 시간을 타서 원수 갚으려고 한 것이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냥 이 연놈들을 어떻게, 어떻게 씹어 삼켜야만 원수를 다 갚느냐?" 그러면서.

아, 그럭하고서는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나고 너무나 무서워서 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와 보니까 한쪽에는 깻벌레가 싹 붙어서 전부 그냥 꿈틀거리고 한쪽에는 거미가 붙어서 그 안으로 그냥 잔뜩 들었더라는 겁니다. 죽고 그냥 꿈틀거리고, 그 겻불에 죽은 거라. 그러니 그 스님께서 얼마나 그 참, 그 노인네들을 건져 주셨습니까. 그러고서는 그 스님은 그 깻벌레와 그 거미를 정식으로 화하게 해서 인간으로 탄생을 하게 해 주셨다는 그런 이치도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벌여 놓지 않은 거는 자기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벙어리로 태어난다든가 불구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보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이 동시에 같은 그 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도 죽겠지만 보는 사람도 정말 그 못지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 모두가 이 세상천지에 너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네 앞에 닥치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흑인이 백인 낳을 수가 없다고요. 뭐,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이건. 요만한 거 하나도 거저가 없고 요만한 거 하나도 에누리가 없습니다. 참 철두철미합니다. 여북하면 악업을 짓지 말고 선덕을 쌓아라,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쁜 일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악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좋은 공덕을 쌓아야죠. 그리고 또 그런 업장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하고 거기다가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공부를 한다면 아주 그게 무너지죠.

※위 법문은 1992년 7월 26일 국외 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